



## 영남대학교

제목 : 2016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6. 3. 11(금) 14:00 ~ 14:30

장 소 : 본관 3층 회의실

참석자 : 한영춘(교직원위원), 임병덕(교직원위원), 유정근(교직원위원), 조해종(외부  
전문가위원), 이훈일(학생위원), 최지수(학생위원), 박성민(학생위원)

불참자 : 한동근(교직원위원)

안 건 : 1. 2016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 변동현황 보고

### 회의요지(내용)

1. 2016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 변동현황 보고

### 회의상세내용

교직원위원1 : 개회를 선언하며, 2016학년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다.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 이사회에 상정한 2016학년도 자금예산(안)이 법인이사회에서 수정 승인 되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한다고 설명하며 예산팀장에게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2016학년도 자금예산서의 변경된 부분 위주로 예산팀장 설명

교직원위원 1 : 예산팀장이 편성과정과 법인의 예산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다.

학생위원 2 : 이사회에서의 예산 조정에 대하여 등심위의 참여가 아닌 사후보고 대상인지 질의하다.

교직원위원 1 : 절차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인이사회가 최종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사회가 예산을 수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결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외부위원 1 : 이사회가 100억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분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교직원위원 1 : 우리대학교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전국 사립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감소,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재정악화가 더욱 심해지는 구조이므로, 법인에서는 학교의 점진적 지출 감축보다는 극적인 감축을 통해 신속한 재정경색 타개의 필요성에 따라 앞의 설명과 같은 예산삭감이 이루어 졌다고 설명하다.

교직원위원 2 : 장학금 감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지 학생위원에게 질의하다.

학생위원 1 : 정원감축에 따른 장학금 감소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다.

교직원위원 2 :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유지하는 수준에서 감소가 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설명하다.

교직원위원 1: 대학원 장학금 감축이 필요한데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장학금을 많이 지급 해왔던 것을 타 대학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이나 감액 후에도 타 대학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다.

외부위원 1 : 지출을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이 핵심인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질의하다.

교직원위원 1 : 예산팀장 설명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근본적이고 조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TFT 구성은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다.

학생위원 1 : 70주년 기념 행사비는 삭감되었는지 질의하다.

교직원위원 1 : 삭감되었다고 말하며, 경비소요가 적은 행사를 중심으로 신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하다.

교직원위원 4 : 급진적인 예산삭감 사항들이 다수이므로 후유증이 없도록 계획하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다.

교직원위원 1 :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본부가 최대한 노력했다고 한 후,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2016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 변동사항 설명을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 회의제출자료

1. 2016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 변동현황 보고

#### 심의결정사항

2016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한영춘	임병덕	한동근	유정근	조해종	이춘일	최지수	박성민
		불참					

기록자 : 예산팀 이선호

확인자 : 기획처장 한영춘